

범여권 대선후보 경선속으로

신당·민주·독자후보 3각 경쟁

양당 10월 후보 확정...여론조사 변수 예비경선 대비 후보들 합종연횡 심혈

대통합민주신당이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고 21일부터 후보 등록과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하는 등 경선 체제에 들어간 데 이어 민주당도 독자 경선에 돌입, 범여권 대선후보 경선레이스가 본격화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오는 10월 14일, 민주당은 10월 8일까지 각각 대선후보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대선을 한달 앞둔 11월께 범여권 후보단일화가 시도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누가 뭐냐=대통합민주신당 경선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김두관 전 행정부총장, 추미애 전 의원, 유재건 의원 등 5명이 등록했고,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신기남 전 우리당 의장,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천정배 전 법무장관 등 나머지 5명의 후보들도 마감일인 22일까지 모두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는 조순형 이인제 신국환 의원,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김민석 전 의원, 장상 전 대표 등 6명의 후보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제3 후보인 문국현 유한길법리 사장, 신당에 불참한 김원웅 의원, 김혁규 강은태 전 의원 등은 독자노선을 걷고 있지만 일부는 민주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선 방식=다음달 3~5일 실시되는 대통합민주신당 컷오프(예비경선)에선 선거인단(일반국민 70%+승계당원 30%)과 일반인 여론조사가



가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명숙, 추미애 후보가 합종연횡 대상으로 상종가를 치고 있다. 추미애 전 의원은 손학규 전 경기 지사와 정동영 전 의장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정 전 의장 측은 추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를 사이에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천정배 의원과의 연대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에 반해 이해찬, 유시민 의원 등 친노 주자들은 배제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해찬-유시민 조합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호감도가 낮아 2순위 표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전방위 협력 자세를 보이고 있다. 목포 출신의 천정배 의원은 문국현 사장과의 연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 김덕규 위원장과 이목희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경선 선거인단 접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가 이명박 대항마”

범여 후보들 ‘맞춤형 전략’ 부상

독재 시대에 뿌리를 둔 신 성장주의자로 몰아세우면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평화경제론’과 서민·중산층 중시의 경제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해찬 후보는 이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있고 정통성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작정이다. 유시민 후보는 “선진통상국가론, 사회투자국가론, 선도평화국가론으로 요약되는 3대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 해나가면서 정치적 우위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후보는 환경부 장관 출신으

로서 정부운하의 허구성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공문화한 범여권 주자라는 점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천정배 후보측은 개혁적인 정책비전 제시와 도덕적으로 하자 없는 ‘무결점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본선경쟁력에서의 우위를 강조할 예정이다.

추미애 후보도 ‘가장 하자없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이 후보와 대항할 수 있는 범여권의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엑스포 유치 결정 D-100

② 제2의 봄으로 승기 잡자

‘4월의 극찬’ 다시 한번

한국은 지난 4월 실시된 세계박람회기구(BIE)의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 실사를 통해 여수의 행사개최 능력을 세계에 과시하고 국내에 대대적인 ‘엑스포 붐’을 일으켰다는 평을 받았다. 당시 서울 등에서 개최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한국은 모로코, 폴란드 등에 비해 뛰어난 경제력과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행사 운영 청사진을 밝혀 실사단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내달 서울·여수서 2차 국제심포지엄 개최 당위성 집중 부각 모로코 제압

특히 실사단이 여수 현지를 방문할 때는 주민 5만여 명이 아름다운 시민정신을 발휘해 큰 감동을 줌으로써 실사보고서에서 ‘엑셀런트(Excellent)’라는 극찬을 이끌어 냈다.

11월 27일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제2의 엑스포 붐과 함께 유치전 승부를 걸만한 큰 행사 가 기다리고 있다. 오는 9월 12~15일 서울과 여수에서 열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제2차 국제심포지엄은 4월 실사대성공에 이어 엑스포 유치전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중요 이벤트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BIE 규약에 따라 두 번 치를 수 있는 국제심포지엄 가운데 마지막 행사여서 유치전 승기를 굳히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 심포지엄 개최로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한국의 엑스포 개최 능력을 각인시키고 국내에 또다시 뜨거운 엑스포 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연계해 여수박람회 개최 당위성을 집중 부각시켜 현재 모로코를 근소하게 앞서있는 유치전 승세를 굳힌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BIE 회원국의 주요 인사와 로세르 탈레스 BIE 사무총장 등 관련 인사 200여 명을 초청해 심포지엄과 함께 여수 현지로 안내해 준비상황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9월 12~14일 서울에서 심포지엄 진행과 함께 경북

공 등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관람한다. 이 기간동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행사 참가자들과 만나 정부의 엑스포 개최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유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심포지엄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인 앨빈 토플러 박사가 ‘지구 온난화와 살아있는 해안과 연안’을 주제로 기조강연하며,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인류 공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참가자들이 개최 후보도시인 여수를 방문한다. 주민들은 방문객들을 맞아 4월 실사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벌여 실사에 못지않은 감동을 선물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남도와 여수시는 엑스포 개최 준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키로 했다.

윤광수 전남도 엑스포지원단장은 “4월 현지 실사에 이어 9월의 두 번째 심포지엄은 국제사회에 여수의 개최 능력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행사다. BIE회원국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교섭을 벌여 확실한 우위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희경기자 unipark@

“문화도시 홍보할 방송채널 설립해야”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위 채널 운영방안 토론회

광주 문화중심도시를 홍보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 각국에 마케팅하는 기능을 담당할 방송채널인 ‘아시아문화채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위와 광주 문화도시협의회 공동주최로 21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채널 설립과 운영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최양호 조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문화중심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케이블, 위성, 인터넷 텔레비전 등의 채널을 통해 문화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아시아문화채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광주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동의를 얻어 유럽의 문화채널인 아르테(프랑스·독일 공동운영)처럼 공동출자 형식의 아시아문화콘텐츠 채널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양호 교수는 “아시아문화채널은 아시아 각국 예술 문화적 행사들을 우선적으로 편성·방송해야 하며, 문화전당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 및 대중문화 공연 등을 통해 아시아 문화 교류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한반도솔라텍(주)에 투자하십시오

태양광 발전사업의 선두기업

- 태양광 발전사업 전문기업
- 해외사업에 진출
- 태양광 발전사업 전문기업
- 태양광 발전사업 전문기업
- 태양광 발전사업 전문기업
- 태양광 발전사업 전문기업
- 태양광 발전사업 전문기업
- 태양광 발전사업 전문기업

투자자 모집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 투자금: 1000만 원 ~ 5000만 원
- 투자기간: 10년 ~ 20년
- 투자형태: 현금, 주식, 부동산
- 투자지역: 전국, 해외
- 투자대상: 태양광 발전사업
- 투자이익: 연 10% ~ 15%
- 투자조건: 신용보증서, 재무제표, 투자계획서
- 투자절차: 신청, 심사, 계약, 투자

한반도솔라텍(주)

태양광 발전사업 전문기업

주요 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모듈 제조, 태양광 부품 제조

주요 실적: 전국 100여개 태양광 발전사업, 해외 50여개 태양광 발전사업

주요 고객: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투자자

☎ 02-550-1234 ~ 123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